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동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주간 충현

충현교회의 사훈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현 편집:양재웅

만백성 기뻐하여라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이번 주 목요일(20일) 저녁 7시 성탄 축하 찬양의 밤

다음 주일(23일) 찬양예배 시 성탄 칸타타



‘성탄 축하 찬양의 밤’이 제1·3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갈릴리움에서 열립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중등3부, 사랑부(정신지체장애우), 예바다부(청각장애우)의 학생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2000년 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말기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드러질 다음 주일(23일) 찬양예배는 더

욱 큰 찬양의 감동으로 넘칠 것입니다. 예브·벤엘·할렐루야 연합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칸타타 ‘기적의 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해묵은(마 2:3)처럼 번민하지 말고 구주의 나심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파티와 선물준비로 분주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베들레헴 말기유를 향한 특별한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 은퇴자 시상, 찬양예배 후 특별 제직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메시지⑩ (금요찬양집회)

크리스마스는 실존적이다 (마태복음 2:11)

아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할까?”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아마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과자를 말할 것이다. 이것은 곧 아이들에게 있어 아기 예수님이 실존적인 사람, 곧 자기들과 같은 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기 예수님은 여느 아기와 마찬가지로 엄마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 아기 예수께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실재를 하였다.(마 2:1~2) 이들은 진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여 만나기를 원했으며 최고의 경배를 아기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헤롯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는가? 구약의 분명한 예언(민 23:3, 24:10~17)이 있었지만 이들의 신앙은 실존적이지 않았다. 신앙과 삶이 별개였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성육신(Incarnation)하셨다. 이에 사람들은 성육신에 관한 장황한 신학 이론을 만들어냈지만 실재는 간단하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이다.(요 1:14) 크리스마스는 정말 아기 예수님을 둘러싼 진짜 이야기이다.(눅 2:8~12,20)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각자에게 실존적이다. 우리 각 사람 삶 속에 임하신 실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왕, 창조주가 오신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이다. 오실 왕을 위하여 여러분 마음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된다.(고전 6:19; 고후 6:16) 예수님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결정을 도우시며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눅 22:42)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다.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기를 원하시는 선물이다.(신 6:4~5)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미 5:2)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셨다.(삼하 7:12~13) 우리에게 시온의 견고한 기초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사 28:16) 동정녀 마리아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다.(눅 1:42,45) 복 있는 여인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품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신 가장 놀라운 선물,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에게 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자. 우리의 할 일은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바라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외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이다.(마 1:23)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셔 들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시 21:6)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기쁨은 천국 문을 지나 별을 넘어 이 땅에 임하였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내 것이 되었다. 이 기쁨이 항상 나를 붙들고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늘 감사 찬송을 하게 한다.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원하신다.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은 동방박사들로 인해 헤롯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놀랐지만 그들은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은 베들레헴까지 신앙의 발견을 누리지 않았다.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던 별은 끝까지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고 크리스마스는 그들에게 실존적인 것이 되었다. 동방박사들은 마구간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바치는 기쁨을 누렸다.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시어 안전히故국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알려 주셨다.(마 2:12) 그들의 삶은 크리스마스의 은총으로 가득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실존적인 크리스마스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아멘.

THE BABY LAID IN A MANGER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and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Luke 2:7)

As humans eat from a table, so animals eat from a manger. Animals will look first at Messiah; people will look first at food. Why is the King of kings, Messiah, treated like that? Today's Bible verse tells us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Him in the inn. Mary and Joseph were poor. As poor people, there was no room. Where were the Israelites? Why didn't they prepare a special place for Messiah? Israel did not really believe in the truth of the Bible. They looked to the Bible for earthly blessings, not spiritual truths. Real treasure, more valuable than pearls, diamonds, gold, and silver cannot be found in earthly palaces or bank vaults. Jesus, who is the greatest treasure, laid down in the worst possible place. The Israelites could not find Him because their hearts were searching in the high places, not the low places. Isaiah 1:3 says, "An ox knows its owner, and a donkey its master's manger, but Israel does not know, My people do not understand." The Messiah prophecy happened exactly like this. How could Israel miss Jesus' birth? If your neighbor has the President of Korea or some important celebrity over for dinner, everybody is going to know about it. Jesus is infinitely greater than these, but no one knows.

Jesus Christ, Messiah, who has the richest reputation and highest honor, was born in the poorest and dirtiest places, worse than a waste basket. He came to save sinners, who are worse than garbage, because He cares about the lowly. Psalms 113:5-7 say, "Who is like the Lord our God, Who is enthroned on high, Who humbles Himself to behold the things that are in heaven and in the earth? He raises the poor from the dust And lifts the needy from the ash heap." Remember the rich man Job as he underwent physical suffering, "And he took a potsherd to scrape himself while he was sitting among the ashes." (Job 2:8) Jesus saved Job, just as He saves us. Mary and Joseph had to find shelter in a stable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 poor. They traveled from Nazareth to Bethlehem by themselves, "Joseph also went up from Galilee, from the city of Nazareth, to Judea, to the city of David which is called Bethlehem, because he was of the house and family of David." (Lk. 2:4). They had no helpers, just each other, on that special night. As the lonely couple gave birth to Messiah, Israel fell into a deep sleep.

Israel was looking for earthly friends, not heavenly ones. John 1:10-11 say,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and the world did not know Him. He came to His own, and those who were His own did not receive Him." This is what exactly happened. No one really saw the most precious stone, the cornerstone. Isaiah 7:13-14 say, "Listen now, O house of David! Is it too slight a thing for you to try the patience of men, that you will try the patience of my God as well?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Behold, a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she will call His name Immanuel." The only position available for Messiah on this earth was a manger. Israel was so busy looking for silver and gold, like non-believers, but when the real thing came along they treated Him badly. Real Christians find the precious stone in the

manger. Jesus Christ does not look for gold and silver, He looks for the hungry and humble heart. The real Messiah can be found in the mud of a stable or on the wood of a cross. The Israelite's problem is the same Christian problem today. Believers come to church dressed in fine clothes, looking to increase their reputation, and acting proud. They are far from humble. They do not want to lower themselves to look for Jesus Christ in the mud or hanging from a wooden cross. They do not want to be friends with the lowly. Like the Israelites, they claim to believe in God, but not really.

The shepherds, who worked at night in what was considered a lowly position, will find the manger of Jesus Christ. They cannot goof around, but must remain watchful, so that the wolves do not hurt the sheep or the thieves do not try and take them. Jesus cannot be found easily. One must really look with all their heart. Song of Solomon 5:2 says, "I was asleep but my heart was awake. A voice! My beloved was knocking: open to me, my sister, my darling, My dove, my perfect one! For my head is drenched with dew, My locks with the damp of the night." This heart sings of love. Do you have this kind of heart for Jesus? Psalms 121:4 says, "Behold, He who keeps Israel Will neither slumber nor sleep." If you really look for Jesus, you will find Him. Herod and the high priests worked in the palace, while the shepherd worked outside, but only the shepherds saw the angels, only the shepherds saw the glory of God. They received the most important message,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which will be for all the people.'" (Lk. 2:10) Of course they were probably very frightened, but they got the best news in the world. They heard that Jesus Christ was born.

The angel told the shepherds to go and find Jesus, "This will be a sign for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Lk. 2:12) The angel wanted the shepherds to witness the truth. In this earth there are only battles, you cannot truly find peace. Even when humans make peace between each other it is only temporary, but if you meet Jesus Christ you will have real peace because that peace comes from heaven. John 1:1-14 say,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God gave His Word to Israel; they received His law, but they did not find Jesus. The Israelites did not find Messiah in the Bible, but you and I through the Bible, through faith, find Jesus Christ in the manger. The Israelites tried to find Him physically in the palace, but could not. Philippians 3:15 says, "Let us therefore, as many as are perfect, have this attitude; and if in anything you have a different attitude, God will reveal that also to you." Saul thought he was perfect. He helped kill Stephen, thinking he was doing God a favor, when in fact he was actually destroying the body of Jesus Christ. The Israelites got the Word but they could not find the Messiah because the Messiah was laid in a manger. 卐

다음 주일 학교

구유 안에 누인 아기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누가복음 2:7)



김성관 목사

사람들이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듯이 동물들은 구유에 담긴 음식을 먹습니다. 동물들은 구유에 누인 메시아가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반면 사람들의 눈에는 음식이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왜, 왕 중의 왕인 메시아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습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은 여관에 아기 예수님을 낳을 만한 방 한 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머무는 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메시아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준비해 두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외지했던 것입니다. 진주, 다이아몬드, 금, 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은 세상의 왕궁이나 은행 금고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보물인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장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3은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만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처럼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탄생을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 이웃 사람이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면 모두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곳, 쓰레기통보다 못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쓰레기만도 못한 죄인들을 구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시편 113:5-7은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들으시" 동방의 부자였던 욥이 육신적으로 고 통당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욕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욥 2:8) 예수님은 욥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도 구원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한 자들이 머무는 방조차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 설 곳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헤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헤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눅 2:4) 그 특별한 밤에 그들을 도와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를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요셉의 도움을 받아 마리아가 외로이 메시아를 출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친구가 아니라 세상의 친구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0-11을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실로 그 누구도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7:13-14는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청진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골라내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땅에서 메시아에게 허락된 유일한 장소가 말구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은이나 금에 눈이 멀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분을 후대접하였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구유 안에 누인 귀한 모퉁이 돌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의에 주리고 절소한 심령입니다. 참 메시아는 마구간의 진흙투성이 속에서, 그리고 투박한 나무 상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신자들은 좋은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 대접받기를 원하며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진흙투성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천한 신분으로 밤에 일을 했던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구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동거리며 게으름을 피울 틈이 없었습니다. 그대들이 양들을 해지거나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정성 다짜 지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면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아가 5:2은 말합니다. "내가 잘찌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의,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121:4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등에서 일했던 반면 해묵과 대제사장들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목자들만이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눅 2:10) 물론 그들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가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라"(눅 2:12) 천사는 목자들이 그 증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에는 오직 진정한 믿을 뿐 진정한 평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화전을 맺는 것만도 그것은 잠시 동안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14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구유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궁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3:15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찌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사울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 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찾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는 구유 안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

마가복음 강해 ⑦

* 대주 철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
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막

1:21) 마가는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단지 마가는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막 1:22)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권위 있는 가르침 이후에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께 말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막 1:24) 이 말씀은 마가복음 5:7에 기록된 쫓겨 나가는 귀신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추방당하는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내버려 둘 것을 요구하였다.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그 권위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 할 뿐이다. 세상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명의 말씀을 무시한다. 이것이 사탄의 세력에 물든 우리의 모습이다. 이같은 사탄의 세력을 향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막 1:25) 권위 있는 말씀에 귀신은 쫓겨 갔다.(막 1:26) “이는 어찌이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막 1:27)

이후에도 예수님은 은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막

가르치는 권세를 나타내시다(1:21~28)

1:39)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모든
사람들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가
림침에 놀랐다.(막 6:2)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에 “아니요. 못합니다.”를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말씀만이 사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막 9:25~27)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와 목표를 가지려는 나의 모든 욕심을 버리자. “나는 매일 죽노라”(고전 15:31)

예수님의 천천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였다.(막 3:21)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고 정죄하였다.(막 3:22~23) 수제자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 예수님에게 매수간은 시험과 환난의 연속이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전권(全權)에 순종하자. 분명 사탄은 전통과 경험 그리고 세상과의 화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십자가를 향해 있는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할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은 손을 놓게 할 것이다. 사탄의 술수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실존적 능력을 체험하자.(막 8:26) 나,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자. 주님의 말씀에 “왜?” 하지 말고, “예!”만 하자. 은총의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의 권위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아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성령의 증인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마 28:19~20) 이 말씀에 순종하여 충헌교회는 중단 없는 선교,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141개 팀 1,200여 명이 선교를 다녀온 것을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10,700여 명의 단기선교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선교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오히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열심과 자신감으로 주님의 일을 잘해 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기뻐 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도구로 빛이 사용하셨습니다.(골 3:10)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

우리의 선교가 오직 성령님의 선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2008년에는 찬송가 276장(하나님의 진리동대)과 마태복음 28:18~20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특히 2008년의 선교의 특징은 ‘전훈련 후지원’입니다.(고후 9:3) CMTC 선교 및 직무훈련을 먼저 받아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선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교위원회에서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선교를 위한 CMTC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성도님들이 훈련을 받았으며 팀장을 위한 훈련, 언어훈련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를 위한 모든 준비와 과정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선교위원회는 매순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교 경험과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고전 2:4)

선교는 우리의 사명

단기선교는 기본적으로 보혈로 거듭난 신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갈 6:14) 특히 우리 교회는 타 교회의 교인에게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가 모든 신자의 사명이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고전 2:2) 물론 본주한 우리의 일상이 단기선교보다 조금 더 편한 일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현재에 안주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벧 전 1:13) 우리는 ‘보혜사 선교사’이며 동시에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우리의 호흡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단기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선교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준비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처럼 선교의 주재는 하나님입니다. 선교의 열매도 성령님이 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선교를 갈까? 말까?’ 이것 저것 계산하고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십자가를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예 3:22)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실한 회개 있다면 선교를 위한 결정의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충헌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아멘.



자신득(장로, 선교위원장)



예수님 만난 지 1년

저는 모태신앙으로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 복음이 무엇이며 왜 선교가 중요 한지?' 몰랐습니다. 은혜가 없는 가운데 실업조 생활을 했으며, 세상적인 복 주심에 감사하며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화와 사람의 주님께서는 1년 전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금요찬양집회를 비롯한 모임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을 통해 저는 진정한 축복과 감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녀로서 영원한 보람인 천국을 약속 받음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며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강조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위임목사님께서는 눈물로 간곡히 말씀을 전했음에도 저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주님이 비취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사가 되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으니, 저를 선교원회와 '인도' 지역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업상 인도인들과 많은 접촉을 했던 저로서는 인도인에 대해 나쁜 감정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 인도 관련 일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나서를 통해 나쁜 배성이 구원 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요나의 그릇된 모습과 주님이 온 인류를 아끼신다고 일깨워 주셨고, 인종에 대한 저의 잘못된 생각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민족과 이종에 대해 편견 없이 나아갈 수 있으며 이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통계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11억 3천만 명으로 그 중 약 2.3%만이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즉, 현재 약 11억 명의 인도인이 복음을 모른 채 죽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예수님에 관해 알려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기에 저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10:13~15)이 되어 그들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박성철(집사, 선교원회원)

지금 전하지 않으면

선교지는 전형적인 농촌이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전쟁으로 홀로 된 할머니들이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기에 우리는 성심으로 전했습니다. 커다란 느리나무 아래의 신당 앞에서 손질 밧질을 해 가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서툰 현지어로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우리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분노를 내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곁에 오지 말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냄새보다 더 지독한 냄새로 가득한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열접하지는 않았지만 선교지에서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최미자(집사, 7교구)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

이 미천한 죄인에게 귀한 일을 맡겨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저를 복음의 도구로 세우셨고 선교지에서 순수한 영혼들을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멋지십니다. 선교지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만 있었습니 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바로 그곳에서 죽어가는 생명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영혼들을 통하여 영적 불모지인 그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아슬라 단단한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보혈의 은총으로 다들어졌으며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주님께서 다듬으셨습니다. 그토록 변하지 않던 자아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깨어져 주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그저 놀라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십자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노경(집사, 1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11일(화) - 12월 18일(화)	2·5교구 연합	김용조
12월 11일(화) - 12월 18일(화)	새가족양육부	나승은
12월 12일(수) - 12월 19일(수)	16교구	문연식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18일(화) - 12월 25일(화)	6교구	박광식

주님이 승리하셨다!

주님은 팀훈련과 영성훈련을 통해 복음의 도구로 나를 다듬어 가셨다. 믿음이 관세다. 나의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드리지! 우리 팀은 주님의 교회이다. 성령님의 뒤를 따라가라. 이 귀한 말씀들이 나를 만져 주시고 무장시켰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던 영호수아를 부르셔서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하신 주님! 팀장님을 영호수아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겁하고 무식한 어부요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린 베드로가 성령으로 변화되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일으키는 이적을 행하게 하신 주님! 저를 성령의 도구로써 주옵소서!"

작은 마을을 찾다나니 많은 영혼들을 만났다. 주님은 어린이이, 할머니, 산도, 환자들 등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영혼들도 많았다. '우리의 할 일이 너무 많구나!' 선교지가 불교의 나라인 줄로만 알았는데, 곳곳에 무슬림 가정도 많았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더니, 우리가 너무 늦게 왔구나.' 마음이 너무나 감격해진 그 영혼들을 보며 마음이 아왔다. 답답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선교는 하나님이기 하셨다. 죄인 중에 피수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나를 주님이 선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했다. 경찰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맛보게 하셨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못하였다. 매순간 내가 살아서 고통스러웠다. 하나 되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팀 사역 가운데 사탄은 때때로 우리 팀을 흔들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승리했다. 아님, 주님이 승리케 해주셨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아멘.

김희정(대학부)



이제야 참 진리를 깨달으며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이 늙은 죄인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찬양대원으로 불러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성경 밖에 걸려 있는 성구에 지나지 않았습디다. 그런데, 뜻밖에 예루살렘 찬양대원으로 임명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이 마른 막대기에 은혜의 새색이 돌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의미를 실감하면서 심령의 뜨거움을 느끼고 새로운 사망감에 불타게 해 주셨습디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부터가 시련이었습디다. 나이를 잊고, 지난날의 경험과 직위, 재는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일개 겸손한 찬양대원으로 거듭나야 했습디다.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더욱 어려웠습디다. 우선 찬양집사가 있는 금요일에는 집회 두 시간 전에 나와서 식사하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귀가하기까지 8시간을 버치는 일은 쉽지 않았습디다. 더군다나 퇴행성관절염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5일 만에 지팡이를 잡고 나와 찬양대에 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디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함께 놀라운 힘을 주셨습디다.

예수님을 좇아가야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약해지려는 저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며, 뒤처지려는 저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디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야 하는 찬양대원이 오히려 주님께 사랑과 은혜의 빛난 가득진 모습이 되고 말았습디다. 이제야 주님이 주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는 말씀이 참 진리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고마우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대선(은퇴장로, 예루살렘 찬양대)

십자가 복음이 너무 좋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한 저는 얼마 되지 않습디다. 저는 지난 1월부터 신앙 생활을 시작했습디다. 그때 저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며, 그 죄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복음이 너무 좋아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간마다 은혜를 받습디다. 성경을 읽으며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많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 받을을 인하여 감사하며 더욱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저는 행동과 생각이 달라졌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디다.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늘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디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운전하기 전에 항상 주님께 가는 목적과 목적지를 말하며 성경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신기하게도 주님이 제 일과를 주관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만나는 사람과도 좋은 시간이 되어 항상 감사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생활을 하고 있습디다. 아직까지 마음의 여유가 없어 이웃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전진하겠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김종삼(성도, 24교구)

아직도 부족한 회개의 눈물

진정한 축복이란 주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이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 진정한 은총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살지 못했다. 나를 가르치는 가장 큰 장벽은 교만이요, 주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을 나의 경험과 윤리와 자아와 세상의 명예와 권세 등이 세대의 가치를 좇아가는 것이 나의 교만을 고백한다. 주님은 회개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축복하신다고 하셨다. 나의 교만을 떨쳐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저 세상의 고통으로부터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매달리다시피 했다. 나의 의지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시간들은 참으로 고통의 나날이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 어느 순간 내 주위 환경을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로 바꿔 주셨다. 주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새로운 직장을 예비하여 주셨다. 아내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 주셨다. 교회학교에 믿음의 멘토를 불러 주셨고, 사순절 40일 새벽기도회가 끝난 뒤에도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사 영의 양식을 먹게 하셨다. 특히 금요찬양집회에서 받는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이지 2시간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었다.

“사랑의 주님,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직 저의 회개의 눈물은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여, 저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저의 죄를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참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동일(집사, 16교구)

내 안에서 넘치는 은총, 예수 그리스도!



감사를 드린다. 영원한 휴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주님께서 살려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송구스럽다. 여기다가 이렇게 귀한 금요찬양집회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큰 기쁨이 넘치는 성도 간의 교제의 장에 함께 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하다. 이처럼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나는 정말 좋다.

특히 계속되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다. 오늘도 나는 감사해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픈 심정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평안, ‘회개’이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음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휩싸여서 다른 것을 더 잘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나는 깨달았다. ‘그 귀하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종한 고난 받으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왜 진작에 몰랐을까?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끼 예수님을 누일 자리도 없었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예수님은 완전한 평화를 나에게도 허락하셨다. 그렇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전혀 관계없이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했다. 미국 시민권을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지만 주님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예수님의 피 값으로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 시민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바꿀 수 없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나는 평안하다. 내가 다쳐도, 직장이 없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천국시민이라는 지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절로 기쁘고 찬양이 난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종한 고난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그 어린 주 예수 볼 자리 없애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육축 소리에 아끼 잠 깨나 그 어린 주 예수 풀 위에 자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떨리고 감동이 밀려온다. 이제 나에게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화평본이다.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사 85:8) 아멘.

김 욱(집사, 1교구)

메리 크리스마스 / 새가족



재혼아! 메리 크리스마스!

재혼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야.
너 교회 안다니지? 그러면 안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에 가.
지옥은 무서운 곳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함께 믿자!
크리스마스에 우리 함께 교회에 꼭 같이 가자!

(이치성(유년부))



인주야! 나 서면이야.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
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니?
넌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원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기뻐하는 날이야.
너도 이번 크리스마스 만큼은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지내면 좋겠다.

정말로! 우리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을 부르자!
그럼 크리스마스 전까지 잘 지내!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함께 가자!

(최서연(소년부))



종호야!

너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를 알고 사랑하고 계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종호야! 너도 이 사실을 믿고 나랑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가 진짜 크리스마스가 되길 기도할게.

(장민호(중동2부))



승표야!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네.

너와 만난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구나!
2년 동안 너랑 싸운 적도 많고 같이 장난치기도 했었지.
혹시 나 때문에 상처된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줘!
승표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자.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을 더 많이 전도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장태훈(중동3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눅 2:10)



안녕, 지나야?

나는 너의 평생친구 지은이야. 잘 지내고 있지? 벌써 2007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고 현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지 않아. 그런데 내게 있어서 '크리스마스'하면 떠오르는 친구가 지나. 바로 나더러 어릴 때 찬양대를 같이 하면서 섰던 찬양대에 같이 서곤 했잖아.
그때 우리는 늘 서로 옆에 서서 손을 꼭 붙잡고 찬양했는데, 기억하니? 나는 그 순간이 무척 기뻐 거든. 친구와 함께 찬양 하는게 너무 좋아서!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세상의 공부와 학원이라는 이유로 주일나조차도 보기 힘들고, 이제는 서로 생일도 생거주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 버렸네.....
솔직히 슬픈게 사실이야. 그래도 나는 항상 너랑 친구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우리 다른 자리에서라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만날 수 있을거라 믿어! 사랑한다. 친구야. 잘 지내고!

(김지윤(고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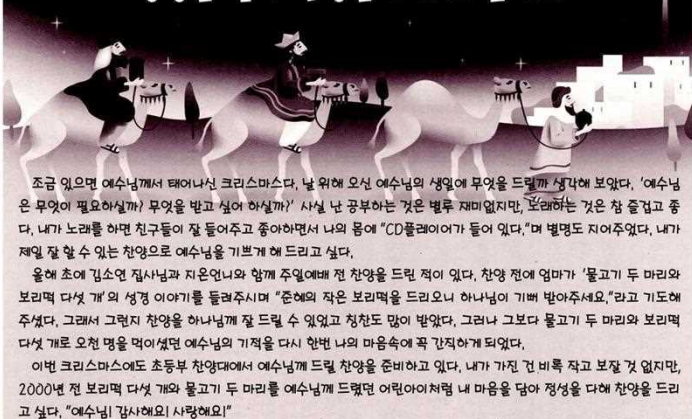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친구야 안녕!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야.
모태신앙인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익숙하고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크리스마스는 최연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아주 기쁘고 감사한 날이야!
마치 우리가 무의식 중에 숨을 쉬는 것처럼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그러기에 우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자!
그냥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어.
친구야! 우리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믿음의 한 형제로서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로 영원히 믿음과 우정 변치 않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자.
이번 크리스마스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자!
메리 크리스마스!

(문영광(고동부))

정성을 담아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난 위해 오신 예수님의 생일이 무엇을 드릴까 생각해 보았다. '예수님은 무엇이 필요하실까?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실까?' 사실 난 공부하는 것은 별로 재미없지만, 노래하는 것은 참 즐겁고 좋다. 내가 노래를 하면 친구들이 잘 들어주고 좋아하면서 나의 용에 "CD플레이어가 들어 있다,"며 별명도 지어주었다.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찬양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다.

올해 초에 '김소연 집사님과 자은언니와 함께 주일예배 전 찬양을 드린 적이 있다. 찬양 전에 엄마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준예와 작은 보리떡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런지 찬양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었고 찬양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보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속에 각인하게 되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초동부 찬양대에 예수님께 드릴 찬양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가진 건 비록 작고 보잘 것 없지만, 2000년 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던 어버이처럼 내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싶다.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김준호(중동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861	이현영	8	소년부	김지영(8)	1878	유복준	24	장년2부	김기남(24)
1862	김정희	24	장년2부	김정희(23)	1879	박희환	4	중동1부	임대현(4)
1863	김필호	19	청년1부	이원보(19)	1880	박복희	17	소양부	최석준(17)
1864	김성아	20	대학부		1881	김다은	9	대학부	임인선(9)
1865	문명자	1	장년부		1882	비은주	13	초동부	박정민(13)
1866	최효규	1	청년1부	이보영(22)	1883	박정훈	13	유년부	김태현(13)
1867	김지우	14	청년1부	정원희(24)	1884	서동기	2	장년1부	
1868	김정은	4	대학부	문순애(4)	1885	서혜진	2	유년부	
1869	이희종	20	장년1부	박종훈(20)	1886	서정민	2	유년부	
1870	한용일	12	중동3부	김신자(8)	1887	이정남	3	청년1부	최수정(3)
1871	유영준	2	청년1부	이원희(19)	1888	장수찬	22	장년2부	윤혜균(18)
1872	박찬우	24	중동2부	이원희(19)	1889	정연희	22	장년2부	윤혜균(18)
1873	김준진	21	중동2부	전문선(17)	1890	윤정숙	22	장년1부	윤혜균(18)
1874	박순옥	14	장년1부	김영애(3)	1891	채은혜	14	대학부	
1875	안대현	3	중동1부	박지현(16)	1892	김민서	12	대학부	송미영(18)
1876	배진우	6	대학부	박우영(16)	1893	신동무	12	고동부	이명진(14)
1877	김영훈	14	대학부	김재현(15)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장 준	이현덕	안희석	장영호	김갑환
4월 5일	6월 9일	1952년	1948년	5월 27일
경술신	임술계	이석진	희곡경	이인철
1829년	1829년	1829년	9월 16일	12월 22일
이계존	김준익	홍근익	황진건	유재진
1826년	1832년	10월 20일	202년	서기(서기) 1826년
강명부	전성원	김정관	양태선	유원철
11월 9일	선조(선조) 1826년	황18년	102년	1826년
박정원	김환수	최희경	황23년	박용원
1826년	1826년	232년	232년	282년
강현철	이무형	장호성		
1826년	고종(고종) 212년	212년		

■ 어전도사

윤근익	김진익	홍순재	이옥주	김갑환
1829년	5월 29일	5월 29일	1829년	1829년
강정원	강희복	최문실	전은희	김갑환
1829년	1829년	1829년	1829년	1829년
김정원	이복순	류근익	한성원	이태주
1829년	1829년	1829년	1829년	1829년
강명철	옥미자	이복순	전경희	이복순
1829년	1829년	1829년	1829년	1829년
황순관	김정원			
1829년	1829년			

■ 전담자취사 서문집 김원집

■ 전담자취사 김소연 ■ 전담인주사 강현희 노은영

선 조 사 유호영